

구례군, 수해지역 주민 대상 원예치료 추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선정

‘꽃 향내 가득한 DAY’ 프로그램 진행

구례군은 22일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꽃 향내 가득한 DAY’라는 주제로 원예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작년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하는 원예치료 힐링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202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원예심리치료 강사의 진행으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다육화분을 만들고, 정원교육을 병행하여 마을만의 특색을 담은 작은 정원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다육화분은 양정마을 100가구에 전달됐다. 마을 앞 작은 정원만들기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로 보식을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내한성이 큰 식물위주로 심어져 사계절 감상할 수 있게 구성됐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최 모 씨는 “작년 수해 때 주민들과 고생한 것이 기억나는데 오늘 이렇게 원예체험



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정마을주민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예비 슬로시티마을 컨설팅 교육 슬로시티마을 주민 15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담양군은 지난해 지정한 예비 슬로시티마을 3개소와 창평 삼지내마을의 이장과 주민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이 담양에 방문하여 슬로마을의 지정 요건과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 로컬리즘과 슬로시티의 연관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과 각 마을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자원을 슬로시티와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예비 슬로시티 마을인 봉산면 방축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마을 자원과 주민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 듣고 슬로시

티와 연계한 마을 활성화 방안을 조언했다.

군 관계자는 “슬로시티 가치 확산 및 이념 정착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슬로라이프 디자인 교육과 이념에 동참하는 주민 참여형 슬로시티 마을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봉산면 방축마을,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을 예비 슬로시티 마을로 선정했으며, 이번 컨설팅 이후 최종적으로 슬로시티 마을로 지정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국가백신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기대’

기재부·복지부·식약처 관계자, 화순백신폭구 방문·사업 협의



화순군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화순군은 화순백신산업특구

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협의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계획 추진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성장 잠재력과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화순백신폭구 현장 방문이 잇따르며, K-글로벌 백신 허브·K-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화순군에 구상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이날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지원센터)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달 말 착공할 예정인 백신지원센터는 백신 제품화 기술, 백신 임상 검체 분석, 품질 검사 등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193억 원과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63억 원이 투입된다.

화순군은 백신지원센터의 기능 확

대를 위한 추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국비 보조를 건의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8월 정부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계획을 발표하자, ▲백신지원센터 기능 확대(총사업비-국비 1267억)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총사업비 430억) 등 5개 연계 사업 추진을 중앙부처에 요청했었다.

백신지원센터 기능 확대 핵심은 백신 제품 개발의 기초 상담부터 품질, 전임상, 임상 상담 등 기업의 백신 개발과 제품화 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단 설치·운영(사업비 296억)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134억) ▲해외 인증 지원 교육(584억) ▲마스터 셀뱅크 구축(131억) ▲검체 분석 및 품질관리(122억) 사업이다.

화순군은 백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계획, 추진 목표와 연관성이 크고 화순백신폭구의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사업 확대 가능성이 많다고 기대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 추진 계획은 민선 7기 화순군이 힘을 쏟아온 글로벌 백신 허브, K-바이오 거점 조성 구상과 맞닿아 있다”며 “백신·생물의약품 제품화·생산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백신·바이오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 남평읍, 남평·금당마을 거리미관 새 단장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1년차 사업 마무리

나주시 남평읍은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1년차 사업을 통해 남평·남평마을 거리 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 역점시책인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에 기반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마을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남평읍은 주민 참여를 통해 올해 남평1리 남평마을에 화분심터, 수원계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백신·바이오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평마을은 자율방범대원들을 주축으로 직접 제작한 나무 화분틀에 정원수인 에메랄드그린 10주를 식재

했다. 남평 구교 및 방범대 초소 앞 공터에 설치된 나무 화분은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사계절 푸르름을 선사하고 있다.

금당마을은 마을 꽃밭 가꾸기와 담벼락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했다. 주민들은 김메기와 주변 청소 작업 후 철쭉 1300주와 화초 2000본을 식재하는 한편 벽화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산뜻한 마을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병철 남평읍장은 “ 으뜸마을 만들기 1년차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남평·금당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민관학 함께 침실습지 자료집 제작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생태교장 곡성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교육력 회복과 마을교육공동체 틀을 제공하고자 섬진강이 들려주는 침실습지 이야기 자료집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침실습지 자료집 제작을 위해 침실습지보존연구회(대표 임체홍), 그리곡성(대표 추선호), 환경축산과, 곡성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고달초등학교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21일 오후3시에 1

차 모임을 시작으로 민관학이 단계적으로 곡성 침실습지 자료집 제작 초안내용 협의 및 검수(교정)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어린이

2021.10.29. - 31.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어린이대축제

